

## 김정한 소설과 문학교육\*

-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

김 명 석\*\*

### 차 례

- |                         |                            |
|-------------------------|----------------------------|
| I. 교사 김정한과 작가 김정한       | IV. 맺음말 - 김정한 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 |
| II. 김정한 소설과 학교 문학교육     |                            |
| III. 문학논술 텍스트로서의 김정한 소설 |                            |

### 국문초록

이 글은 요산 김정한 소설의 문학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요산은 작가 데뷔 이전부터 교사로서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교육에 앞장섰고, 교사로서 전하지 못한 당시 농촌의 현실과 민중의 고통을 작가의 목소리로 대변하는 리얼리즘문학을 평생 일관성 있게 추구하였다.

따라서 민족문학으로서, 또 리얼리즘 소설로서 갖는 김정한 소설의 문학사적 가치는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제5차 교육과정 이래 현재의 이르기까지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등 세 작품이 꾸준히 수록되어 왔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의 심화 과정으로서 문학 교과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위주의 수업이 텍스트 중심이 아닌 학습활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대 교수

동 위주의 지도 방법을 선택하면서, 김정한 소설이 다루어지는 방식도 변화하게 된다. 문학사적으로 인정된 정전으로서의 작품 자체의 이해를 위해 작가의 생애와 연관된 문학적 지식과 작품의 독해 및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위주의 수업을 위한 제재로 선택된 것이다.

본문에서는 학교 문학교육의 교과서 내에서 학습목표에 따라 요산 소설의 어떤 점들이 강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래톱 이야기」는 첫째, 문학의 갈래의 소단원으로 서사 갈래의 본질을 특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학습활동으로 꼼꼼히 읽기를 통해 자아와 세계의 갈등, 인물, 서술자 등을 이해하고, 시야 넓히기를 통해 소설과 신문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둘째, 문학의 수용과 창작의 소단원으로 창의적으로 문학 작품 수용하기를 위한 학습활동으로 신문 만들기 활동을 시도한다. 「수라도」는 소설의 인물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단원에서 직접적 인물 제시방법의 사례로 소개되며, 학습활동에서는 주인공 가야부인의 형상화에서 전통적 여인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생각해보고, 「토지」의 주인공 서희와의 비교 등을 통해 상호텍스트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문학논술 텍스트로서의 「사하촌」의 현재성과 가능성을 점검해보았는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작품 선택은 아닐지라도, 농민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체적인 투쟁에 나서는 과정에 대한 사실주의적 묘사의 교육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점에서 이 작품은 독서 및 논술 교재에서 토론을 위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김정한 소설의 문학교육 의미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로서 작가로서 민족 교육과 민중의 자각을 위해 평생을 일관하였던 김정한의 문학 세계가 지니는 문학적 의미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요산의 문학수업은 계속되고 있다.

주제어 : 김정한, 요산,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사하촌, 문학교육, 문학교과서, 정전, 문학논술

## I. 교사 김정한과 작가 김정한

요산 김정한은 작가이기 이전에 교사였다.<sup>1)</sup> 김정한은 1928년 동래고보 졸업 후 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9월부터 울산 대현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sup>2)</sup> 그러나 두 달 만인 11월에 조선인 교사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연맹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편지로 썼다가 검열에 발각되어 경찰에 피검된다. 동래서에 이첩되어 고문과 조사를 받다가 풀려나지만 학교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에 겪은 일은 소설 「어둠 속에서」(1970)<sup>3)</sup>와 「반골 인생」 등의 수필에 잘 드러나 있다.

동경유학 생활 중 소설 창작을 시작한 김정한은 여름방학 중 양산농민봉기 사건에 연루되어 뜻하지 않게 학업을 그만두고, 1933년 10월 남해 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한다. 이 무렵 본격적으로 문학에 대한 뜻을 세우고, 항일 일선에 나서지 못할 바에는 글로서나 고발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우리말을 조사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 1) 습작기 요산의 시 「벼는 익는다」와 「야국(野菊)」이 『조선일보』 학예란에 발표된 것은 1927년 9월이지만, 그의 소설 데뷔작인 「그물」이 『문학건설』에 발표된 것은 일본 유학시절인 1932년 12월이다. 이하 요산의 생애에 대한 전기적 연구 기록은 조갑상의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징함」(『작가연구』 4, 새미, 1997.10)을 참고함.
- 2) 요산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는 교육계, 특히 국어교사로서의 인연이 깊다. 동생 네 명중 광환은 국어교사로서 경남과 부산 일원에서 교장을 지냈고, 병한도 국어교사를 했다. (조갑상, 앞의 책, 91쪽.) 이러한 교육자 집안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되는 데는 요산이 다녔던 명정학교 설립에 기여한 부친 김기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T국민학교에 부임한 김인철 교사는 고교를 갓나온 청년교사로 D고보 졸업 후 조혼한 아내를 두고 단독으로 부임한다. 조선어가 시간표 언어로 기재된 것에 대한 항의 동방요배 반대 등의 이유로 교장과 대립하다가 사상이 불온하다고 비판받던 중 조선인교원연맹에 관한 편지가 발각되어 고향 경찰서로 연행되어 고문을 받는다. 9월이란 부임시기부터 두 달 간의 교사 생활, 동래서 이첩까지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의 우리말 노트 작업은 8권에 이르는데, 초기 대표작인 「사하촌」(1936)도 바로 남해에서 나왔다. 불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작가의 고향 범어사 측의 반발을 사서 분란이 생기자, 교사였던 김정한은 순시 나온 도 장학관에게 왜 반종교적이며 농민을 선동하는 작품을 썼느냐는 힐책을 받기도 한다. 1939년 5월 남면 소재 남명학교로 전근을 간 김정한은 불화를 빚던 학부형과 일인 교장 사이를 중개하는데, 이때의 체험은 후에 「낙일홍」(1940)<sup>4)</sup>의 소재가 된다. 그러나 1940년 『동아일보』 동래지국장이었던 동래고보 선배로부터 경찰의 방해로 신문돌리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그렇게 겁이 나거든 그만 두시오. 내가 돌릴테니”라고 큰소리 친 것이 빌미가 되어 7년간의 교사직을 그만두고 남해를 떠나게 된다.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사회활동을 재개한 김정한은 1947년 부산중학교에서 다시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 6·25 발발 시에는 부산대학교 조교수 신분이었다. 이후 김정한은 줄곧 대학교수로서 국문학을 가르치게 된다. 1960년 4·19 때 부산대학교 교수 시위에 가담하였다가 5·16 후 해직된 김정한은 4년 후 복직되어 1974년 2월 정년 때까지 교수직에 있었고, 정년 후에도 부산대와 동아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맡았다. 이 때문에 그는 교사 김정한보다는 김정한 교수로서 기억되게 된다.

그렇다면 김정한은 1928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60년 간 교편을 잡고, 교사 내지 교수인 동시에 작가로서 활동을 한 셈이다. 삶의 체험을 소재로 한 그의 리얼리즘 문학에서는 자연스럽게 교사로서의 체험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그는 남해에서 「사하촌」을 집필한 이래로 교사로서 자신이 못 다한 이야기들을 문학작품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대표작 「모래톱 이야기」(1966) 역시 교사인 주인공이 관찰자가 되어 낙동강 하류 조

4) 주인공 박재모가 학교의 기틀을 세우고도 요다 사부로부터 교장 자리를 내주고 낙지로 전근 가는 작품 줄거리에서는 새로 온 교장에 대한 학부형들의 반발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마이섬의 내력과 민중의 수난사를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김정한 소설에 숨겨져 있는 교육자로서의 체험을 조망해 보는 것은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작가 김정한의 문학 작품이야말로 교사 김정한의 또 하나의 교육 활동이다. 그러므로 김정한의 작품을 읽고 교육하는 것은 김정한이라는 한 교사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한 소설의 연구사 목록을 살펴보면 그의 소설을 문학 교육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은 거의 없고, 교육대학원 논문 단 두 편이 있을 뿐이다.<sup>5)</sup>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김정한의 작품 세 편, 즉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사하촌」 등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학교 문학교육에서 김정한의 문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의 문학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김정한 문학 교육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도 통한다. 논의 전개를 돕고자 분석대상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학교 문학교육 외에 독서 및 논술 교육에서의 김정한 문학 소개 양상을 덧붙여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 II. 김정한 소설과 학교 문학교육

### 1. 제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 내 수록 양상

현행 제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김정

5) 윤기환, 「소설 작품의 주제 파악을 위한 지도 방법 연구-고교 <문학> 교재에 수록된 김정한 작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임지영, 「김정한 중기소설의 작품세계와 그 교육적 고찰」,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4.

한 소설의 교과서 수록 양상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제5차 교육과정 이후 문학 검인정 교과서의 김정한 소설 작품별 수록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5차 교육과정

저자	교과서명	출판사	김정한 소설 수록 여부			비고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김동욱 외	고등학교 문학	동아출판사	●			
김봉근 외	"	지학사			●	
김홍규	"	한샘	●			
박동규 외	"	금성		●		

- 제6차 교육과정

저자	교과서명	출판사	김정한 소설 수록 여부			비고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	한샘		●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금성		●		
윤병로 외	고등학교 문학	노벨문화사	●			
이문규 외	고등학교 문학	선영사	●			

- 제7차 교육과정

저자	교과서명	출판사	김정한 소설 수록 여부			비고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상)	디딤돌		●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하)	천재교육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문원각	○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상)	민중서림	○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하)	중앙출판사	○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상)	교학사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상)	지학사		○		
최 응 외	고등학교 문학(상)	청문각		○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상)	태성출판사			●	

●는 교과서 본문, ○는 본문 외 학습활동

이상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차 교육과정 이후 김정한 소설의 수록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문학교과서 종류가 8종에서 18종 상하권으로 증가한다는 외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1960년대 이후의 작품들이 새롭게 문학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모래톱 이야기」(1966), 「수라도」(1969)와 같은 작품들을 교과서 편찬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식민지 시기와의 거리가 생기고 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강조하는 분위기가 약화되면서 「사하춘」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사하춘」은 여전히 3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나 모두 본문 외 학습활동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비교보다 중요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강독과 설명을 통한 작품 이해 위주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위주 수업으로 바뀌면서 김정한 소설에 대한 문학적 경험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 중심의 문학관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인간의 활동(活動, activity)이라는 특성에 두는 관점이며, 문학의 문학다움을 문학 작품 자체에서 찾는 실체 중심이나 속성 중심과는 달리 문학은 어떻게 활동함으로써 성취되며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살피으로써 문학의 특성을 설명하는 관점이다<sup>6)</sup> 문학의 절대적 진리란 없거나 있다 해도 교사의 권위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다고 보고, 독서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서 구성되는 것으로서의 문학을 중시하게 된 것도 문학의 하나의 활동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과정 상의 문학 교육 목표<sup>7)</sup>에 대한 재설정과도 관계된다.

6)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6쇄), 18쪽.

7) <7차 '문학' 과목 교육 과정 목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즉 김정한 소설이 7차 교육과정 이후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과서의 대단원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에 부합하는 소단원 작품 선정에서 편집자들에게 선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느냐에 좌우된다.

문학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변화시키고 감정 이입을 통해 대리 경험의 세계를 전개하며 자신과 타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게 하고 정서를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교육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학 자체가 교육 작용을 수행한다는 것과 문학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개념상 다른 문제이다. 인지·정의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방향으로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변화 추구라는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문학 경험을 통한 자기 교육은 ‘가치 있는 방향으로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변화’라는 범주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기 때문이다.<sup>8)</sup> 김정한 소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독자가 얻는 교육적 효과와 학교 문학교육에서 김정한 소설을 가르치는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다. 다른 어느 수업보다도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는 문학 수업에서는 특히 학생의 주체적 행위를 유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절대적 권위의 교사가 학생들 위에서 작품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감상하고, 토론하며, 창조적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에 따라 문학 교육에서의 평가 목표 역시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위주로 설정하되, 문학 작품을 즐겨 읽는 태도 및 습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제 ‘김정한 소설 즐겨 읽기’를 위한 교재 구성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김정한 소설이 문학교육의 텍스트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작품 별로 점검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8)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민중서림, 2002, 11쪽.

## 2. 「모래톱 이야기」 - 서사 장르의 특성과 작품의 수용·창작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모래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총 5개이지만 본문에서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디딤돌(김윤식 외)과 교학사(구인환 외)에서 나온 두 교과서이다.

김윤식외, 『고등학교 문학(상)』(디딤돌)에서는 대단원 ‘I.문학의 본질’ 가운데 중단원 ‘3.문학의 갈래’의 소단원으로 「모래톱 이야기」가 수록되어 서사 갈래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의 학습활동인 <친해지기>는 <꼼꼼히 읽기>-<시야 넓히기>-<표현하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에서는 먼저 “① ‘나’는 갈밭새 영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친해지기>는 작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쉬운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학생들 스스로 전체 줄거리를 바탕으로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면 “K중학교 교사였던 ‘나’는 자신이 담임한 학생들 중 나룻배로 통학하는 건우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가정 방문을 간다. ‘나’는 그 집에서 건우의 할아버지인 갈밭새 영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어부인 갈밭새 영감의 몇 푼 벌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식의 대답을 유도한다.

이어서 <꼼꼼히 읽기>로 들어가 작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교과서 필자들이 지향하는 작품 지도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다.

1.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외부 요인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2. 갈밭새 영감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서술자가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점을 이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4.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자.

1번은 갈등의 외부 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해 봄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갈등과 대립을 다루는 서사 갈래의 본질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과서 수록 부분의 내용을 학생 스스로 간추려 보고 핵심적 요인을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특히 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의 이미지가 다수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권력자들의 횡포와 교묘하게 겹쳐진다는 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2번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인물의 행동을 인과 관계에 입각해 정리해 봄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활동이다. 특히 갈밭새 영감의 행위는 우발적인 것이지만 다수의 선량한 섬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정당방위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학생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갈밭새 영감의 살인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토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번은 소설 구성의 핵심 요소인 서술자의 성격에 대한 일반인 원리를 구체적 작품에 적용하여 서사 갈래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작가 김정환이 실제로 교사 재직 경험이 있지만 작품의 서술자가 작가 자신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소설의 허구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번은 소설에서 사건의 경과를 전해 주는 서술자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서사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나 태도에 따라 소설의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과 연관시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 작품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시야 넓히기>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2001년 11월 21일 ○○일보

환경 미화원 900만원 돈가방 주인 돌려 줘

환경 미화원이 도로 청소 중 주운 900여만 원의 주인을 찾아 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 중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 백○○(47세) 씨는 21일 오전 5시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를 하던 중 현금 135만 원과 수표 780만 원 등 모두 912만 원이 든 가방을 주웠다. 백씨는 인근 파출소에 돈가방을 갖고 가 습득물 신고를 했고, 경찰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서울서 일을 마치고 곧 돈을 찾으러 파출소에 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백씨는 “돈을 주웠을 때 그냥 챙길까 하는 생각도 없진 않았지만, 돈을 잃어버려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다.”며, “비록 형편이 어렵더라도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자는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 (1)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소설과 신문 기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 전달된 정보의 명료성이나 현장감 등을 기준으로 소설과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자.

이 활동은 사실과 허구를 비교해 봄으로써 소설의 특성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활동 (1)에서는 공통점을, 활동 (2)에서는 차이점을 묻고 있는데, 개별적 활동보다는 모둠별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신문 기사와 소설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를 학생 스스로 느껴 보도록 유도한다.

<표현하기>

다음 조건에 따라 이 소설에 이어질 내용을 짚막하게 이어 써 보자.

- 서술자는 원작에서와 같이 ‘나(건우의 담임)’로 한다.
- 중심 내용 : 할아버지가 투옥된 후에 건우가 취한 행동.
- 단서 : 원작의 결말부에 제시된 ‘9월 새 학기가 되어도 건우 군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건우가 취했을 행동을 추리하여 이야기를 꾸며 본다.

원작의 결말에 독자의 상상력을 덧붙이는 ‘이어쓰기’ 활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소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수업의 시간적 제약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과제를 주어 미리 써 오도록 하며, 원작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을 발표시키는 방향으로 활동을 지도한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사건의 전개 방향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용을 이어 써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업기술이 아니라, 결말의 완성을 통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만든다. 또한 현대소설이 대부분 ‘열린 결말’의 구조를 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어쓰기’는 상당히 유효한 지도방법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모래톱 이야기」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의미 있는 지도 모형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상)』(교학사)은 같은 「모래톱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문학의 본질과 소설의 갈래적 특성을 학습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먼저 작품이 속한 대단원명은 ‘Ⅱ.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며, 중단원 ‘2. 문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활동2-창의적으로 문학 작품 수용하기’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앞서 제시된 <활동 안내>를 통해 ‘창의적으로 수용하기’라는 활동의 목표와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창의성이란 기존의 요소들로부터 새롭고 가치 있는 사물이나 아이디어

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 또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가치 있는 창의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독후감이나 독서 토론과 같은 전통적인 감상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수용해 보자. 이는 문학 작품의 의미를 삶의 다양한 국면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신문 만들기 활동은 하나의 예시이므로 교실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 보자.<sup>9)</sup>

본문에 이어 <학습활동>은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두 질문과 ‘원리·확장’ 부분에서 제시하는 ‘신문 만들기 활동’, 그리고 ‘발표·토의·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활동의 예시로서 ‘신문 만들기 활동’은 다음 문제와 같이 진행된다.

원리·확장

■ 이 소설을 읽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신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고 서로 토의하여 각 항목을 작성한 후에 신문을 창의적으로 꾸며보자.

○○ 신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lt;머릿기사 제목&g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lt;기사&g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lt;만평&g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lt;사설&g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lt;독자 투고&gt;</div>

9)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상)』, 교학사, 2003, 194쪽.

‘신문만들기 활동’은 NIE논술의 보급과 함께 글쓰기 교육에서 자주 이용되는 학습활동으로 ‘내용의 사실적 이해’를 위해 작품 속의 사건을 하나의 정보로 이용하여 사건 기사로서 소개하고, ‘비판적 사고’를 위해 사설을 쓰게 한다. 아울러 ‘독자 투고’나 ‘광고’란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창의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과정을 모둠별로 진행하여 독자들 간의 의사소통 또한 문학교육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학습활동은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앞에서 제시한 학습목표의 달성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학습목표와 제재를 연결하여 수행된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문학교육과정에서 학습활동의 내용은 학습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대부분의 작품에서 획일적이고, 거의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인물, 사건, 배경, 주제, 시점, 서술자의 특성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절이나 구체적 사건, 작품 읽기를 확장하는 부분 외에는 문학작품들 사이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sup>10)</sup> 이 점에서 「모래톱 이야기」의 선정이 과연 서사 갈래의 본질 탐구라는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학습활동을 도출할 수 있는 텍스트이어서인지, 아니면 문학사의 주류적 평가에 따라 선정된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3. 「수라도」 - 소설 속 인물 읽기

「수라도」는 「모래톱 이야기」나 「사하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학교과서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품이었다. 그렇다면 현장의 교사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음에 인용할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이전인 1989년에 나온 것으로 당시 「수라도」가 교과서 내에 수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과서 밖의 문학으로서 작품의 중요성을 이미 인정받았

10) 김혜영, 「현대문학 정전 재검토」,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4, 106-108쪽.

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생애의 폭이 넓고 깊었던’ 가야 부인의 괴로운 과거와 의젓한 처신을 중심에 놓고 시대인 허진사 대의 가족들이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겪는 수난사를 그리고 있다. 또한 중편인 이 작품은 한국 종교문학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한 작품으로, 4대에 걸친 가족의 수난사에서 우리의 현대사를 읽을 수 있다. 죽음을 당하는 이와모도 구장의 묘사에서 외세에 기생한 친일 세력들의 말로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작가적 양심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도경 형사였던 이와모도의 장남의 출세에서 비틀거리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 못한 현대사의 파행을 묘사하고 있다. 아무튼 이 작품은 가족의 수난과 이에 대응하는 가야 부인과 오봉 선생의 인고(忍苦), 지절, 초월(超越)의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소설』, 푸른나무, 1989.

교사들은 이 작품이 가야부인과 시대인 허진사 가문의 4대의 수난사를 통해 일제 식민지 시기 우리 민족의 수난을 보여준다는 점, 친일잔재를 청산 못한 현대사의 파행 고발 외에도 독실한 불교신자인 수로부인의 긍정적 형상화를 통해 종교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물 형상화를 통해 주제를 파악하고, 작품과 작가를 시대와 적절히 연결시키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들어와 김상태 외 5인의 『고등학교 문학(상)』(태성)에서는 대단원 ‘IV. 소설의 수용과 창작’에서 「수라도」를 다루고 있다. 「수라도」는 중단원 ‘1.소설의 인물과 성격’의 하위 항목으로 서정인의 「강」과 함께 제시되어 총 3시간의 시수로 학습하게 되어 있다. 이 단원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파악해 봄으로써 작품의 주제와 사회의식을 도출해 내고, 더 나아가 소설 속 인물의 역할과 유형, 그리고 제시 방법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대단원이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첫째,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출하여 작품 속에 제시된 인물에 대한 묘사 및 서술을 바탕으로 각 인물들의 이력서를 작성해 보도록 지도한다. 둘째, 각 인물들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작품 내 비중, 성격, 성격의 변화 유무 등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소설에서 인물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인물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소설에서 인물들 간의 갈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sup>11)</sup> 교과서 집필자들은 서술자의 설명을 통한 「수라도」의 직접적 인물 제시 방법과 인물의 행동, 대화, 외양 묘사를 통한 「강」의 간접적 인물 제시 방법을 비교하면서, 등장인물 이력서 작성 연습을 이용해 소설 읽기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인물의 역할을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주인공 가야 부인을 통해 소설의 인물 유형 중 전형적 인물을 이해하고, 인물 간 갈등의 시작과 고조, 해소가 소설의 구성단계임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한 소단원의 지도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수라도」에 등장하는 가야 부인, 오봉 선생, 이와모도 참봉, 허 진사, 명호 양반, 시어머니 등 인물의 성격과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인물들 간의 상호 관계 및 특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3. 이 작품에서 인물들을 통해 드러난 주제 의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교재에서는 먼저 작품의 일부를 제시하면서, ‘잠깐<sup>12)</sup>’이란 질문을 덧붙

11)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상)』, 도서출판 태성, 2003, 239-241쪽.

12) 교재에 나오는 잠깐 질문은 총 여섯 개가 있다.

- 분이는 왜 고조할아버지가 조금 무서운 어른이었나 보다고 생각했을까?(193쪽)
- 가야 부인의 외모와 행동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녀의 성격은 어떠할까? (194쪽)
- 가야 부인의 남편인 명호는 어떠한 성격의 인물일까? (194쪽)
- 우리 근대사의 비극은 시어머니와 가야 부인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196쪽)
- 해방이 가야 부인에게나 부락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붙여 놓았다. 이러한 발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읽기 중 활동 단계에서 지도 중점인 인물의 성격과 유형, 상호관계를 자연스럽게 탐구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이는 왜 고조할아버지가 조금 무서운 어른이었나 보다고 생각했을까?”와 같은 발문에서는 ‘무서운 어른’이란 표현이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 결코 굴복하지 않은 고조할아버지의 지조와 절개를 어린 분이의 시각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제 7차 교육과정은 독해보다는 학습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소단원의 학습활동은 <내용학습>-<적용학습>-<토의·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지도서를 참고하여 학습활동의 교수-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내용 학습>

1. ‘수라도’는 가야 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야 부인에 초점을 두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1) 가야 부인은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여성 인물을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자.
  - (2) 가야 부인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은 가야 부인과 같이 민족의 수난사를 겪는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다른 소설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문제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의하면 <수라도>는 일제 하 민족적 저항 의식이 강했던 허진사 가문의 며느리 가야 부인의 일대기로서, 그녀는 한 가문의 수난을 온몸으로 감당해 내는 인고(忍苦)의 표상이며, 불도에 귀의함으로써 굴절 많은 생애를 마감하는 한국적 여인상으로 해석된다.<sup>13)</sup>

---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197쪽)

- 가야 부인의 머릿속에서 떨어져 내린다는 자줏빛 모란꽃잎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198쪽)

13) 앞의 책, 244쪽.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가야 부인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녀의 삶의 태도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연습을 지도하도록 지침을 준다. 이는 한 인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세워보고,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비록 긍정적 인물이라 하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독자로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읽는 훈련이 된다. 가야부인을 영웅화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도서의 ‘해결 가이드’에서처럼 가야 부인이 보여 준 자기 희생과 인고의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한편, 현대와 같이 페미니즘적 시각이 대두된 시기로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가야 부인이 겪은 일은 역사적 비극의 산 증인으로서의 의의 외에도, 그녀 개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비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양면적 평가를 시도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도 가야 부인의 성격을 무조건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가지는 장단점을 균형 있게 추출해 낼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인물들을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해 낼 수 있는지, 상호텍스트적인 이해와 광범위한 독서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지도서의 취지나 평가 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도서 자체가 가야부인의 성격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가야부인은 곧 전통적 여인상이라고 단정한 후에 이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야부인이라는 인물 형상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접근하기보다는 전통적 여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고정관념에 기초해서 판단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한다. 가야부인은 소설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이다. 가야부인에 대해 양반 집안의 며느리는 지배층의 일원이면서 그 집안에서는 피지배층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

지고 있어 민중적 시각을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이 가야 부인이라는 ‘가모장’(가부장이 아닌)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백낙청의 설명 방식은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가야 부인이 받는 고통은 큰 범주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지배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통해 가야 부인은 여성의 자결권을 추구하는 신여성도 아니고, 인고하는 구여성도 아니고, ‘억척어멈’도 아니고, 현모양처도 아닌 한국문학사에서 새로운 여성으로 우뚝 서게 된다.”<sup>14)</sup>는 견해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가야부인을 전통적 여성상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문학교육에서 문학연구의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 <적용 학습>

2. ‘수라도’는 민족의 수난사를 한 여성 주인공이 삶을 통해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박경리의 ‘토지’와 흡사하다. 다음을 통해 ‘서희’의 성격을 알아보고, ‘가야 부인’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말해 보자.

앞의 <내용 학습>에서 상호텍스트적 관점으로 비슷한 유형의 주인공을 찾아보듯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토지』의 주인공 ‘서희’와의 비교를 과제로 주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 의하면 서희와 가야 부인은 그 성격과 역사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두 인물의 성격 차이를 발표해 보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민족의 수난사를 겪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두 인물은 닮았지만, 『토지』의 서희는 가문을 유지하고 잃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과 혼인을 하고, 일본과도 협력하는 등 「수라도」의 가야 부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인다. 가야 부인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 대체로 순응하면서, 다만 그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의 살아

14)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강진호 편), 새미, 2002, 234쪽.

나갈 방안을 찾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 방식을 택하였고, 현실의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 미륵불을 모시는 등, 종교 등의 초현실적인 힘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다소 나약한 측면도 없지 않다. 반면에 서희는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위해서 먼저 행동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과 맞대응한다는 점에서 가야 부인보다 강인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졌다. 지도서에서는 평가 시 유의 사항으로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겪은 두 여성 인물이 사회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각 소설 작품에 대한 독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두 인물에 대한 묘사와 서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두 인물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고 있는가에 두고 있다.

이번에도 문제는 지도서의 인물 비교가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낮은 신분을 위해 결혼하는 것으로 인물의 적극성을 비교하여 우위를 판별하고, 일본과의 협력도 가문의 유지와 땅의 회복을 명분 앞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평가해도 되겠는가. 지도서는 작품의 수동적인 이해를 피하고 적극적인 독서법을 위해 주인공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소설 속의 등장인물을 그 고유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비교로서 작품 이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토지』의 서희나 「수라도」의 가야부인은 모두 작품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물로서 지도서의 평가지침에 있듯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작품 독서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시경쟁의 상황에서 『토지』와 같은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몇 마디나 참고서의 몇 줄에 좌우된 선입견을 갖게 될 위험이 크다. 이 점에서 교과서 편집 못지 않게 균형 감각이 있는 지도서와 참고자료의 제공이 김정환 소설 교육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sup>15)</sup>

15) 교사용지도서는 교사가 부리는 어떤 수단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문학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자신의 견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안목을 세

<토의·토론>

4. 인고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가야 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고, 여주인공의 성격을 바꾸어 본다면 어떤 모습과 성격으로 바꾸고 싶은지 말해 보자.

이는 소설을 읽을 때 학생 스스로가 인물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감상 및 수용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문제로 제시된 것이다. 일단 학생들로 하여금 가야 부인의 장단점을 모두 추출하여 각자 자기 방식대로 고쳐보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등장인물의 성격을 바꾸어 보다 창의적인 작품 읽기가 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활동은 작가의 권위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경계를 넘어 보다 상호소통적인 글쓰기를 지향하는 현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학생들이 장차 고급독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작품을 읽음으로써 세계와 인간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는 제도예의 순치를 의도하는 교육과 자유로운 인간을 지향하는 문학 사이의 상호 긴장과 갈등이 공존한다.<sup>16)</sup> 앞에서 제시된 「수라도」의 학습활동들은 작품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인간형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수용자 자신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작가가 창조한 작품과 독자가 수용한 작품 사이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문학적 경험을 가능케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라도」는 작가의 대표작으로서 강독을 통한 작품 이해나 작가 및 시대와 관련된 문학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제

---

을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지도서는 큰 기능을 담당하여 교사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내용의 편향을 통어할 수 있는 준거로 지도서는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제4판]』, 삼지원, 2004, 266-267쪽.

16) 윤영옥, 『현대소설의 문학교육적 해석』, 역락, 2007, 15-16쪽.

재가 아니라 작품 속의 ‘인물 읽기’를 통해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독자로서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접목시킬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요산의 어느 작품 못지 않게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서의 가야 부인의 형상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기보다는 가야 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여성상에 대해 반성적인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또한 여학생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여성상과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고, 남학생들도 젠더적 시각에서 여성인물들에 관심을 갖고 읽어내어 양성평등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교육적 의미가 충분한 텍스트이다.

### Ⅲ. 문학논술 텍스트로서의 김정한 소설

문학과 교육은 어떻게 관계 맺는가? ‘문학을 통한 교육’과 ‘문학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문학의 교육’ 등이 가능한 조합이 될 것이다. 교과로서의 문학 교육이 고유의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영역이었다면, ‘문학을 통한 교육’은 이와는 달리 문학 제재가,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언어사용, 가치관 등이 또는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합한 여러 방법이 문학 교육이라는 교과로서의 경직된 구분 영역을 떠나 바람직한 교육 방법 일반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한 논의인 것이다.<sup>17)</sup> 이때 문학과 여러 인접 교과간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합이 문학과 논술과의 만남이다.

학교 문학교육과 별도로 1990년대부터 대입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자 다양한 종류의 읽기 자료들과 논술 참고서들이 출간된다.

17)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합 교육』, 삼지원, 2005, 38쪽.

논술 출제 경향의 변천과 함께 문학 논술도 일정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대부분의 책들이 주로 「사하촌」을 소재로 한다는 점은 이 시기 학교 문학교육에서의 텍스트 선정 양상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sup>18)</sup> 그러나 생각할 거리와 토론 문제를 제공하며 해설을 덧붙이는 식으로 구성된 이 책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활동 위주의 교재 구성과 큰 차별화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어 문학의 본질과 형식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주체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것은 문학교육의 목표와 논술 교육의 목표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집필자들의 면면으로 볼 때 같은 필진이 대다수 참여한 제7차 교육과정의 교재 편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윤식의 『고교생과 함께 하는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sup>19)</sup>에서는 김정한 소설의 특징으로 현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거가 항상 중요한 대상으로 처리된다는 점, 낙동강 언저리의 농촌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빈농을 소재로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이광수식의 하향식 계몽주의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농민소설을 추구한다는 점과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개인적 자아를 넘어서 집단적 연대의식에서 비롯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사하촌」을 이러한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소개한 후 <통합형 문답>이란 지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18) 김정한의 대표작 「사하촌」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각종 학교교과서에 수록되어 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중서림, 중앙, 문원각 등의 교과서에서 본문 외 학습활동의 제재로서 부분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19) 김윤식 편, 『고교생과 함께 하는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 3』, 한국문학사, 1997. 이 책은 김윤식·서경석, 『논술로 통하는 소설』 5, (한국문학사, 2005)로 제목을 바꾸어 다시 출간된다.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문제 앞에 <언어논술 Q&A>, <통합논술 Q&A>란 이름을 붙여 '통합논술'이 대세를 이루던 입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 등장인물들을 분류한 다음, 이 작품의 주요 갈등이 어떤 인물들 간의 어떤 갈등인지를 이야기해 보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으로 암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2. 이 작품은 특정한 주인공 한 사람이 아닌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야기한 특징들을 정리해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3. 이 작품에는 지주 계급이 되어 부를 축적하고 특권을 누리는 승려들과 이들에게 착취당하는 소작 농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작품의 소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속적인 이해관계와 종교적인 신념 간의 갈등에 관해서이다. 종교와 세속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풀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이는 작품 읽기를 통해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작품의 서사 전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으로, 세 번째 문제는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불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응용하여 종교와 세속의 갈등에 대한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한용의 『한국대표단편소설』<sup>20)</sup>에서는 주로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연관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작가 김정한은 현상에 안주하거나 세속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따위의 일체의 순응주의를 배격했으며, 그의 생애에 일관된 삶의 자세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저항이었다고 설명한다. <감상의 길잡이>에서는 “김정한 소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서럽게 버림을 받는 변방의 인간계층에 빛을 주며, 의미를 부여하고, 생존 권리를 확보해주고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문학은 경제적 삶의 증언이요,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항변이다. 그는 다수의 고통을 자기의 문학적 세계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에서 그의 위치를 굳게 가다듬는다. 용기와 신념이 이 작가의 문학 정신의 요체이다.”(231쪽)라고 평가하고, 그의 문학을 농민 문학인 동시에 민중 문학으로 규정하였다. <해석의 지

20) 우한용 외, 『한국대표단편소설 3』, 빛샘, 1997.

평>에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이 작품에서 농민들이 당하는 핍박의 진행 과정을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해 필연성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
2. 이 작품이 식민지 시대에 농촌 사회의 계층인 ‘농민(소작농)—마름—지주’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때, 마름과 지주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쓰고, 그들의 행위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자.
3.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농민들이 보광사로 몰려가는 장면은 그 이전에 그들이 보여 주었던 행동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 보자.

이와 같이 현재의 문학교과서에서 작품을 통해 주로 인물과 갈등의 소설적 기능을 이해시키는 것과 달리 농민문학, 민중문학으로서 작품에서 반영하는 식민지 현실과 민중들의 고난과 저항에 작품 읽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기적으로 90년대 중후반에 나온 김윤식과 우한용의 책은 본격적인 논술서로 보기에는 어렵고, 논술을 잘 하려면 일단 책을 읽어야 한다는 통념에 편승하여 문학사적 정전들을 하나로 엮어서 제공한 읽기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문학과 논술이 ‘문학논술’이라는 통합된 개념으로 발전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다.

우한용은 문학과 논술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소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논술의 주제는 문학에서 추구하는 삶의 총체성과 연관된다. 둘째, 문학은 주인공들의 갈등과 논쟁의 마당이다. 셋째, 문학은 통념을 깨고 새롭게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형상화한다. 넷째, 문학은 다양한 가치 체계의 정당성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sup>21)</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들은 논술교육의 최적의 텍스트임에 틀림없지만 이론의 발전과 달리 실제 독서 및 논술교육 현장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은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21) 우한용, 「문학과 논술, 그리고 삶」, 『문학과 논술, 어떻게 할 것인가』(우한용 외), 푸른사상, 2008, 25-28쪽.

박동규의 『읽자 읽자 우리 소설』<sup>22)</sup>에서도 「사하촌」을 수록하고, <미리보기>에서는 ‘한 농촌 마을의 수난사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모순과 함께 자연 재해를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의지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으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이 일제가 불교를 식민지 정책에 악용한 실상과 이에 야합한 일부 사찰의 반민족적 행위까지 암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민들이 스스로 현실에 눈을 뜨고 이를 고치기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다른 계몽주의 농촌소설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깊이 생각하기>에서는 다음 두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1. 이 작품에는 ①현실 순응형 소극적 인간 ②관습에 충실한 보수적 인간 ③민감한 현실주의 인간 ④현실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인간 등으로 묘사된 인간형이 있다. 각각 그 인간형이 누구인지 찾아내 바람직한 인간형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2. 당시 불교계가 어떤 형태로 농민들을 착취하고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찾아보자.

‘인물’의 유형에 대한 문제도 소설 속 등장인물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형’에 대한 토론으로 유도하고 있다. 질문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실을 직시하고 투쟁하는 농민을 형상화한 농촌소설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서의 특징을 인물 탐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간형이 각각 자신의 처지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다성적으로 어울리는 텍스트로서 이해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인간형’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인간형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접근법은 “문학은 주인공들의 갈등과 논쟁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자체가 보다 다성적일 필요가 있고,

22) 박동규 편, 『읽자 읽자 우리 소설』, 인디북, 2004.

그 점에서 인물의 선악이 분명한 「사하촌」을 비롯한 김정한 소설의 한 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한 소설이 문학논술로서 갖는 장점중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부분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논술이 추구하는 이념성과 역사성을 문학작품의 형상화로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의 하나로 「사하촌」이나 「모래톱 이야기」의 서사공간을 통해 ‘역사적 상상력과 공간적 상상력의 융합’<sup>23)</sup>의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 근대사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과 창조적 개인으로서의 작가가 만나는 지점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범주이며, 역사적 상상력이 어떤 요소를 통해 구체화되고 형상화되는 가하는 문제를 김정한의 민족문학을 통해 풀어가면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하촌」은 김정한 소설 중에서는 가장 정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문학사적 위상이나 5차에서 7차에 이르면서 문학 교과서에 거듭 수록되는 것, 그리고 독사 및 논술 교재에서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점은 「사하촌」이 문학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하나의 정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전은 가르쳐져야 할 텍스트의 공식적 실체이며, 공식적 실체로서 그것은 전범적이고 규범적인 진술을 한다고 정의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학교육의 정전들이 과연 공동체의 이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문제<sup>24)</sup>라는 점에서 「사하촌」이 추구하는 세계는 과연 현재적 의미를 갖는가 묻고 싶다. 문학논술 텍스트로서 「사하촌」은 여전히 일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민족주의적 시각의 제재 선택으로서 이 작품이 갖는 시효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굳이 항일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농민이 아닐지라도 학습자들이 토론과정에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인간

23) 김동환, 「한국 소설의 내적 형식과 문학교육」, 『문학교육의 민족성과 세계성』 (한국문학교육학회), 태학사, 2000, 151쪽.

24)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2004, 99-100쪽.

고유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주체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이 작품은 문학교육적 측면에서 현재성을 가질 수 있다.

#### IV. 맺음말 - 김정한 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

본문에서 연구자는 김정한 소설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민족문학으로서의 문학사적 의의나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민소설로서의 가치, 민중의 자각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같은 당위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소설의 본질을 교육시키기 위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문학교육에서 가르치는 ‘무엇’은 작품의 ‘주제’나 작가의 메시지의 직접적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문학 교육은 ‘문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간과 역사를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서사적 장치들의 이해와 독자들의 창조적 수용이라는 ‘어떻게’의 관점에서 김정한 소설이 교과서 내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앞의 논의들을 토대로 김정한 소설의 문학교육 대상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문학사적 평가보다는 문학 교육적 의도와 관련된 작품 선별이 필요하다. 그동안 문학교과서의 제재선정 기준은 일단 고전과 현대로 양분하여 현대문학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문학사를 기술한 후 그 대표작들을 교육적 고려 없이 교과서에 수록하여 정전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김정한 소설 중 「사하촌」이 1930년대 농촌소설의 대표작으로서 교과서에 수록되게 되었다. 일단 작품이 수록된 작품은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며, 「사하촌」의 경우는 작가의 저항적인 생애와의 일치를 통해 신화화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학사적 중요성과 문학교육적 중요

성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문학연구에서 작가와 작품의 재평가가 이루어져도 문학교육에서는 그것이 빠르게 수용되지 않는다. 가령 김정한의 작품세계에서 「사하촌」과 「모래톱 이야기」의 간극을 매우 는 해방 후 중기소설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일제말 「인가지」와 같은 작품을 통해 친일성이 거론되어도 문학교육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신화화된 정전의 권위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학자나 일반 독자에게 갖는 작품의 의미와 연령이나 지적 수준이 제한된 학생들을 수용자로 하는 문학교육의 목표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김정한 소설 중 교사와 학생을 등장인물로 다루면서 시대와 역사의 문제에 접근한 「모래톱 이야기」나 주제적인 여성의 삶을 다룬 「수라도」의 교과서 수록은 문학사의 하한선이 내려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문학 교육적 목표에 부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둘째, 과거 문학교과서 편집 방식의 하나는 주제별 분류와 그에 따를 대표작 선정이다. 김정한 소설은 크게 민족문학, 농민문학, 리얼리즘문학의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각 시대의 지배담론의 영향을 짙게 반영하고 있다. 교과서가 갖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나오면서 정전에 대한 반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한이라는 작가는 반골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지배담론과 대립된 길을 고독하게 개척해 왔다. 식민지 시대에 그가 걸은 길 뿐만 아니라도 친일 잔재 청산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들을 작품에 다루었고, 한편으로 중앙문단에서 소외된 지방 문인의 대우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무너지는 탈근대의 시대에 와서 견고한 모든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김정한 문학의 의미를 되물으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주제들이 기성세대인 교과서 집필자와 교사들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에게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 현재성과 미래가치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문학교육의 목표를 학습활동을 통해 어

떻게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문학교육 체제 내에서 김정한 소설은 문학의 본질과 수용을 교육하기 위한 학습활동 시 효과적인 텍스트임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문학교과는 국어교과의 하위 영역으로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학습을 위한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문학 작품 자체로서의 독립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 글의 논리 전개가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결국 김정한 소설의 기능주의적 장점을 검증하려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과서를 통한 정전화가 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교과서 밖의 문학 교육적 대안의 하나로 ‘문학논술’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 문학논술은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서 재등장한 성격의 것이어서 아직 학문적, 교육적으로 독자적인 방법론을 완전하게 개발하지 못한 채 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따라서 문학이 논술에 종속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학교 문학 교육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문학논술의 방법론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점에서 본론의 사례처럼 김정한 소설은 의미 있는 모형들을 생산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로서 작가로서 민족 교육과 민중의 자각을 위해 평생을 일관하였던 김정한의 문학 세계가 지니는 문학적 의미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요산의 문학수업은 계속되고 있다.

## 참고문헌

### - 기본 자료

- 김정한, 「사하촌」, 『김정한 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9-39쪽.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143-167쪽.  
김정한, 「수라도」, 『김정한 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204-262쪽.  
김정한, 「어둠 속에서」, 『인간단지』, 한얼문고, 1972, 279-299쪽.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상)』, 교학사, 2003.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상)』, 디딤돌, 2003.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디딤돌, 2003.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상)』, 민중서림, 2003.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민중서림, 2002.

### - 논문 및 저서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제4판]』, 삼지원, 2004, 223-369쪽.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6쇄), 5-37쪽.  
김동환, 「한국 소설의 내적 형식과 문학교육」, 『문학교육의 민족성과 세계성』(한국문학교육학회), 태학사, 2000, 141-156쪽.  
김윤식 편, 『고교생과 함께 하는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 3』, 한국문학사, 1997, 260-309쪽.  
김혜영, 「현대문학 정전 재검토」,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4, 87-129쪽.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박동규 편, 『읽자 읽자 우리 소설』, 인디북, 2004, 281-285쪽.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합 교육』, 삼지원, 2005, 13-66쪽.

우한용 외, 『한국대표단편소설3』, 빛샘, 1997, 229-281쪽.

우한용, 「문학과 논술, 그리고 삶」, 『문학과 논술, 어떻게 할 것인가』(우한용 외), 푸른사상, 2008, 16-48쪽.

윤영옥, 『현대소설의 문학교육적 해석』, 역락, 2007, 11-22쪽.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강진호 편), 새미, 2002, 227-250쪽.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2004, 83-124쪽.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징함-인간 김정한」, 『작가연구』, 새미, 1997. 4, 90-108쪽.

\_\_\_\_\_, 「요산 김정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문학연구』 9,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봄, 11-31쪽.

<Abstract>

## Kim Jeonghan's novel's and Literature education

Kim, Myung-Seok

This writing's purpose was to find about Yosan Kim Jeonghan's novel's cultural educational significance. Before he comes out as a writer, Yosan leded nation's education under the Japan's settlement, and he kept pursuit realism literatures for all his life, to speak by proxy for the rural community's actuality and pain from populace.

So, his writings, such as *Sahachon, A village under the buddhist temple, Moraetop story, A Story of sandy plain* and *Surado, A scene of utter confusion* has been kept contained since the 5th educational process, as his writing has been acknowledged as importance of the nation's literature and realism novel and also the history of the literature. But since the 7th educational process in the language depart, as a deepen progress, the way of treating Kim Jeonghan's novel has changed from aimed to students to not concerning about the text but the activity. Not like reading and impression of the literary knowledges and works to understand the book which has acknowledged in a literature history but they choose the book as a subject of the activity classes by goals of the study.

In the body of the writhing, we've look closer about what part of Yosan's novel has been emphasized followed the goals of the study. About the *Moraetop Story*, firstly, it focused to understand about the

essential branch of prologue as a small unit of the literature's branch. As the studying activity, read the book carefully, and understand narrator and the characters and the complications between the world and the "I". Also, by the enlarge of the vision,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sameness between the novel and the newspaper. Secondly, As a expropriation and creation of the literature, try to make a newspaper as a study activity to expropriate the literature, creatively. *Surado* has introduced as an example of direct introduction of the character at the unit of understanding and founding about characters in the novel. As the study activity, thinking about main character, Madam Kaya, as a negative way, and find out differences with the main character in the novel *Toji*, to scheme of understanding about mutuality of the text.

At this point, the book give us the things to think about and discuss about as the teaching material for the reading and essay. So, as the teacher and as the writer, Kim Jeonghan, who kept pursuit nation's education and popular's consciousness for whole his life, and his writing's literary meaning has the nowness until even now, a hundred's year of anniversary of birth. Yosan's literature class is continued.

Key Words : Kim Jeonghan, Yosan, *Sahachon*, *Moraetop story*, *Surado*, literature education, literature textbook, canon